

# 정읍에 호남권 선비문화 수련원 건립

시, 문화행정국 언론 브리핑  
칠보면 일원 무성서원 문화수련원  
24억 투입 내년까지 건립  
지역자원 활용 성장동력 확보



류태영(가운데) 문화행정국장이 정읍시청 소회의실에서 문화행정국의 소관 업무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정읍시 제공>

정읍시가 호남지역 선비문화의 정체성을 이어가기 위해 칠보면 일원에 '무성서원 문화수련원'을 건립한다.

정읍시는 최근 책임행정 실현과 시정 동력 확보를 위해 마련한 문화행정국 소관 업무 언론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브리핑에서 류태영 문화행정국장은 6개 과의 주요 업무와 추진사업으로 가장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 '무성서원 문화수련원 건립'에 대해 설명했다.

류 국장은 "영남권에는 안동과 영주 문화수련원 등 선비문화 전승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지만, 호남지역은 미진한 상황"이라며 "호남지역의 유일한 문화수련원을 건립해 정읍의 인문·자연 등과 연계한 '인성 수련의 매카'로 자리 잡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화수련원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칠보면 무성서원 인근 태산선비마을 일원에 사업비 58억 원을 들여 2024년까지 건립한다.

류 국장은 "수련원이 들어서면 고운 최치원, 불우현 국극인을 중심으로 한 호남지역 선비문화 전

승을 통해 역사 및 문학적 가치를 재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수련원 개원 시 까지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을 위한 시립예술단 환상공연과 2023년 정읍벚꽃축제(4월1일 예정)를 홍보하고, 내장산리조트 주변 관광활성화 사업과 정읍천-정읍역 연계 관광 핫플레이스 조성사업에 대한 설명을 이어 나갔다.

또 신뢰 받는 세무 행정 구현을 위한 세정과 소

관 업무와 동학문화재과 소관 '활토현 전적 종합 정비계획 수립'과 '마한·백제 문화권 유적 발굴 및 복원사업'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류태영 문화행정국장은 "정읍이 갖고 있는 역사와 문화, 관광 등 다양한 지역자원을 활용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차질 없는 세정·정보업무 추진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 고창 '1000원 택시' 150개 마을 달린다

군, 거리기준 완화 운행 확대

고창군이 민선8기 핵심공약 중 하나인 행복콜택시(천원택시)의 운행 확대가 본격화 된다.

고창군은 오지마을 교통복지에 위해 운행하고 있는 행복콜택시 거리기준을 올해 0.5km로 완화(마을회관부터 가까운 버스승강장)하고 운행마을을 150여개로 확대한다.

관련 예산도 지난해보다 대폭 늘어난 7억5400만원으로 편성했다.

행복콜택시는 해당 마을 주민들이 택시를 불러

마을에서 읍·면 소재지까지, 읍·면 소재지부터 해당 마을까지 1인당 1000원만 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이다. 주민 이용요금 1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고창군이 전액 부담한다.

앞서 심덕섭 군수는 선거당시 군민들의 편리한 교통복지 증진을 강조하며 '교통약자 1000원 택시 확대운행'을 공약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농촌지역은 버스승강장이 멀고 소재지까지 가는 버스 노선이 별로 없어 어려움이 컸다"며 "행복콜택시 운행마을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 고창 어르신에 이·미용비 1인당 6만원

다음달부터 75세 이상

고창군이 3월부터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사업'(사진)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경로 이·미용비 지원'은 만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6만원의 고창사랑상품권을 지급해 이·미용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달 말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해 3월부터 고창사랑상품권을 배부할 예정이다. 상반기 중 조례 개정을 추진해 지원 금액과 사용처를 확대할 예정이다.

앞서 고창군은 민선 8기 공약으로 '어르신들의 활력있는 사회·경제활동 지원'을 공약사업으로 채택하고,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존 이·미용업소를 묵묵히 이·미용업소로 확대하고, 금액도 6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릴 방침이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 "정읍의 역사 깃든 유물·기록물 찾습니다"

시립박물관 전시·연구 자료 활용  
근현대까지 모든 유형 공개 구입  
다음달 6~10일까지 제출



정읍시립박물관 전경.

정읍시가 '정읍시립박물관'의 전시·연구 자료로 활용할 유물을 공개 구입한다.

정읍시립박물관은 지역 공립박물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전시·연구 자료 활용과 지역 문화재의 보존을 위해 매년 정읍과 관련된 유물을 집중적으로 수집하고 있다.

지난해는 창암 이삼만, 동초 김석근, 소제 이상길, 효강 박득봉 등 정읍 서화실 선설과 관련된 유물과 보천교, 무성서원, 일제강점기 정읍 모습 등을 담은 다양한 유물을 확보했다.

올해는 수집 범위를 확대해 역사시대부터 근현대까지 정읍의 역사를 오롯이 담고 있는 모든 유형의 유물과 기록물을 구입 대상으로 정했다.

유물 매도를 희망하는 개인 소장자, 문화재 매매업자, 법인 또는 단체는 오는 3월6일~10일까지 정읍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과 정읍시립박물관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단 대상 유물은 소장 경위가 분명해야 하며 도굴품, 도난품 등의 불법 유물이나 출처와 소유가 분명하지 않은 자료는 매도신청을 할 수 없다.

시는 신청 유물에 대한 서류심사와 유물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구입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정읍시립박물관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정읍시 관계자는 "가치 있는 우리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미래 세대의 소중한 문화 자산으로 남길 수 있도록 유물 구입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 남원 신혼부부·청년 전세금 대출 이자 지원

부부 합산 연소득 9500만원·청년 5000만원 이하

남원시가 지역 내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 이내) 및 청년(만 39세 이하)이다. 소득 기준은 신혼부부의 경우 합산 연소득 9500만원 이하, 청년은 5000만원 이하다. 공고일(1월29일)

기준으로 임차 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등재하고 실제 거주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나날이 힘들어지는 경제 상황 속에서 남원에 원동력이 될 우리 신혼부부와 청년들이 이번 사업을 계기로 조금이나마 날개를 달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 남원 영유아 위한 32개 놀이프로그램 운영

아이맘행복누리센터 참여자 모집

남원시가 아이맘행복누리센터에서 3월 영유아 놀이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춘 오감, 요리, 로봇, 영어, 음악, 미술, 체육, 키즈발레 등 32개 과정으로 256명을 모집한다.

신청은 15일부터 22일까지 남원시아이맘행복누리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4월 개관 이후 맞춤형 양육 서비스를 제공해 이용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아이맘행복누리센터는 놀이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장난감 도서관, 영·유아 놀이체험실, 시간제 돌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장난감 도서관은 회원가입(연회비 2만원)으로 356종 1400여점의 장난감을 무료로 대여할 수 있다. 영·유아 놀이체험실은 50분 단위로 운영(1회당 2000원)되고 있으며, 특히 유아놀이체험실은 스펀지볼, 트램펄린, 정글짐 등 설치돼 자유롭게 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이다.

시간제 돌봄서비스는 영아(만 6개월~만 36개월) 대상 가정양육수당 아동(시간당 1000원), 어린이집이용 아동(시간당 4000원)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